

Global Market Trend Global Construction 2030 Oxford Economics

2016.08.30



[Global Market Trend 01]

Global Construction 2030

Oxford Economics

[K-Hub 연구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Contents

발간배경 _01

1. China, US and India Drive Global Construction _01

2. United States _03

3. China _04

4. India _07

5. United Kingdom _07

6. Indonesia _09

7. Japan _09

8. Europe _10

9. Nigeria _11

주요시사점 _11

발행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발행일: 2016년 8월 30일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316동 211호

전화: 02-880-4317

※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심층적인 분석 기반이 아니며, 참고용임.

발간배경

- Global Construction 2030은 '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 and Oxford'에서 출판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핵심 연구 시리즈의 네 번째 결과물이다. 글로벌 건설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보고서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함으로써 건설 산업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진화하는지 설명해준다.
- 지식허브센터 또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상 중이며, [Market Trend Report]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리서치&컨설팅 기관이 이미 내놓은 입수 가능한 건설 산업 전망 자료들을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Market Trend Report]의 첫 번째 대상은 'Global Construction 2030'¹⁾의 일부를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 본 보고서를 통해 한국 건설 산업이 글로벌 건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건설 산업에서 주목해야하는 지역과 상품 시장에 대한 해안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China, US and India

: Drive Global Construction Growth to 2030

- 2030년까지 중국, 미국 그리고 인도가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장의 모든 글로벌 성장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인구 및 경제 생산의 1/3 이상을 차지할 이 세 나라는 미래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에 US \$ 4.5조 이상 추가할 것이다. 2030년에는 여덟 개의 세계 건설 시장(글로벌 성장 기여도의 순서: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멕시코, 캐나다, 나이지리아)이 건설의 모든 글로벌 성장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흥미롭게도, 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Oxford Economics의 글로벌 성장 순위에서 영국을 뽑은 것은 처음이다. 영국은 수십 년간 투자부족으로 대규모의 인프라와 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놀랄 일이 아니다. 영국 정부는 영국 정부에게는 도전적일 다수의 글로벌

1) Oxford Economics (2015), Global Construction 2030 : A Global forecast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2030

별 메가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결정하였다.

- 또한 글로벌 성장 순위에서 나이지리아를 뽑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지만, 나이지리아는 2030년까지 중요한 인구증가를 겪으며 미국의 인구를 초과하면서 세계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스는 요하네스버그와 카이로를 추월하여 2030년까지 GDP기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스는 글로벌 메가시티로서 급부상할 것이다. 글로벌 건설시장은 2030년까지 US \$ 8조원이 증가할 것이다. 글로벌 건설시장의 전체 규모는 US \$ 17.5까지 이를 것이다.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비율은 3.9%까지 일 것이다.
- 건설의 누적 크기는 2030년까지 US \$ 212 조원에 다다를 것이며, 신흥 아시아에서 US \$ 77.8조원을 차지할 것이다. 건설이 글로벌 에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2.7%에서 2030년까지 14.7%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편당은 선진국과 신흥시장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 중국은 2030년까지 글로벌 건설 활동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이지만 이것은 오늘의 수준에서 아주 조금 증가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소비자와 서비스가 경제성장 스토리를 이끄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중국에서 논란이 많은 ‘한 자녀’ 정책의 전환은 장기간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운 산업화 국가인 중국의 변모 결과로서, 새로운 부유한 소비자 계층에 의해 회복되기 전에 올해 최초의 하락으로 기록될 주택경기 침체가 국내 건설시장에서 역사적으로 낮은 증가수준을 경합하게 될 것이다.
- 미국 건설시장은 2030년까지 중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간 평균 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건설시장은 특히 주택부분에서 2020년까지 강한 순환적 상승세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글로벌 자금위기 동안 부분적으로 주택 Large falls에 의해 구동될 것이다.
- 중앙은행에 의해 구동되는 다른 통화정책과 결합된 북미에서 셰일가스 와 오일의 발견과 시추는 보다 균형 잡힌 성장패턴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 글로벌 자금위기동안 볼 중요 경제에 큰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다. 개척시장에서 특히 미국은 재 균형의 성장, 글로벌 건설의 성과를 이끌게 될 것이다.

2. United States

: US Construction Growth Outperforms

- 주택의 강한 반등으로 2030년까지 견고한 성장전망과 함께 US 건설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강한 순환적 반등에 의해 견인될 것이다. 경제와 GDP가 2011년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건설은 여전히 위기 전 수준의 20% 아래였다. 여전히 주택 성과가 추세에 못 미치는 수준이면서, 위기 이전의 피크수준의 반절 정도보다 아래 수준인 35%로 이것은 과장된 미국 주택 시장이다. 2030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른 주택 시장 성장으로 꼽힐 것이며, 주택은 단기간에 걸쳐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오직 인도, 미얀마, 베트남만이 미국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넓은 뉴욕 메트로 지역은 부분적으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대한 작업에 의해 구동되며, 미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의 강력한 건설 성장을 나타내도록 설정되어 있다. 대부분이 100년 전에 지어진 도시 기반 시설에 상당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2030년, 뉴욕, 휴스턴, LA와 시카고 메트로 지역은 미국의 모든 건설 활동의 대략 20%를 차지한다.
- 우리의 글로벌 건설 2030전망은 주택 가격이 미국에서 어떻게 증가하는가에 대해서도 전망할 것이다. 우리는 주택가격의 장기적 성장률의 최신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분석결과 미국에서 주택 평균 가격은 2030년 미국 \$ 308,000에 도달하는 75%로 상승할 것이다.
- 미국의 비주택부문은 강력한 US 달러의 단기적인 드래그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에 의해 지원 받는다. 제조활동의 Re-shoring은 계속될 것이고 3년 이내에 중국보다 미국의 제조업이 더 저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US 경쟁력은 제조업의 Re-shoring을 야기할 것이다. 조만간 중국보다 미국의 제조업 단가가 더 저렴해질 것이다.
- ASCE에 따르면 미국 인프라의 상당한 양이 replacing, repairing modernising을 필요로 한다. 2020년까지 US 인프라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Us \$ 3.6조원이 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PPP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추진력 없이 US 인프라의 투자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공적자금은 상당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인프라의 넓은 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

3. China

: Construction Growth Set to Support New Consumer Class in China to 2030, as on-child policy abolished

- 중국의 성장둔화는 이미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해왔고, 현재 전 세계 경제 사설에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져왔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시장으로 남을 것이며 전 세계 건설 시장 성장에 대한 중국의 역할 역시 매우 크게 유지될 것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인 건설시장 크기인 USD 8조불 중에서 2.1조불 정도에 대한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 이미 성숙한 산업계 중에서 건설, 제철, 시멘트 생산 및 기타 산업계는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성장을 찾고 초과된 가용 설비/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 제철 업계에 대한 최근 정부의 발표는 이에 대한 사례이다.
- 다른 구조적인 변화들 역시 중국이 개혁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몇 가지는 다른 요인에 비해 중국의 건설시장을 더 빨리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에 중국은 그 경제체제를 산업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었다면, 미래에는 10억 명의 새로운 국제 소비자들의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시키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소비자 물품 및 서비스의 성장은 중국의 경제가 2030년까지 미국 경제와 라이벌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2014년 가격 기준으로 하면, 중국은 2028년까지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인도와 ASEAN 국가의 성장에 비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이며 때로는 간과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인구증가 속도의 부재 및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이다.
- 인도는 2022년까지 인구수로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1자녀 정책으로 인하여 중국의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노령화 될 것이다. 1자녀 정책은 2013년에 조금 완화되었으며, 최근 중국 정부가 완전 폐지를 시행하였다. 2030년까지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은 거의 20%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수준과 비슷할 것이며, 65세 이상의 인구의 증가는 전체 인구 성장의 10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1자녀 정책 폐지는 이러한 성장이 우리의 예측 기간 말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인구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

구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한다. 그에 비해, 2030년까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를 이미 초월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매우 큰 성장을 뜻한다. 이에는 특히 병원 시설의 현대화를 포함한다. 수천 개의 병원 및 병원 시설은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신도시 또는 지역종합병원들은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인프라 사업을 재정 지원하는데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수정된 예산 법률은 지방정부 재정을 이용한 재정대출을 금지하고 부채상환 역시 도입 하였다. 이는 중국이 계속 발전하겠다는 두 가지의 ‘판도를 바꿀’ 계획을 최근에 발표함을 뜻한다.
- 그 첫 번째 ‘판도를 바꿀 계획’은 새로운 PPP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는 개인투자가 중국의 국내 인프라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중국의 재정 및 개발부 및 개혁 집행위는 1,043 PPP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는 RMB 1.97 trillion (약 USD \$3,178 억불)에 이른다. 국제 법률회사인 Pinsent Masons의 홍콩/베이징 지사에서 PPP 전문가가 작성한 Global Construction 2030 Report에 더 자세하게 이러한 중국의 PPP 시장의 급속한 관심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2013년에 처음으로 공표되어 현재 집행 중인 것으로 더욱 더 중요한 발표가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one-belt, one-road)’ 정책이다. 이를 중국의 1/3을 전 세계 시장에 문호를 개방하는 중국의 실크로드라고도 부른다. 이에 비해, 처음 중국이 그 문호를 개방한 것은 몇 십 년 전이고, 일대일로에 필적하지는 못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시점은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2001년 12월의 발표이다.
- 중국의 야심찬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인프라 사업에 상상 밖의 투자와 집행을 일으킬 것이며, 전 세계 인구의 2/3를 포함하고 60개의 개별 경제체제의 10억 명 이상의 전 세계 소비자를 새로운 소비계급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전 세계 건설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로 보인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사업은 전 세계 건설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다.

- 중국의 신-실크로드 사업은 중국이 재정지원하고 건설하려는 새로운 도로와 철도 연결망, 더 나은 통신 및 기술, 해안 연결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의 모든 나라의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무역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중국은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역시 AIIB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 일본 그리고 여러 국가별 국부펀드가 지원하는 시스템에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다.
- 거의 틀림없이, 러시아는 아시아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약 USD 4,000억불에 이르는 에너지 공급 계약을 포함하는데, 장기적으로 깨끗한 에너지 공급처를 찾는 중국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중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막대한 파이프라인 건설 공사 역시 포함한다. 러시아는 유럽보다 아시아의 성장 시장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함께 중국의 신-실크로드 사업의 주요 파트너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계획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 국제 설계사, 법률회사 및 다국적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이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수행할 업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며 중국의 신-실크로드 사업은 중국의 방대한 생산 공급 체인망과 더불어 중국의 건설 역량을 이용하여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규모의 국제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건설시장에서 매우 가공할만한 업력을 가지고 있다. ENR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건설회사 상위 10개 사 중 6개사가 중국회사이다. Global Construction 2030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 중국의 실크로드 상세 계획은 이미 지도와 함께 상세 투자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명한 세계적 기관인 중국-영국 비즈니스 상임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영국과 중국은 인프라 사업에 정부 대 정부 협력 관계를 한층 상승시켰으며, 영국은 AIIB의 창립멤버로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여 방관하였다. 영국은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미 여러 가지 발전상을 보여 왔는데, 이에는 근래에 발표한 중국의 영국 핵 발전 프로그램 투자를 포함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건설시장에 약 USD 44.7조불을 집행할 예정”

4. India

: Fastest Growing Construction Market to 2030

- 인도는 2030년까지 현재 세 번째 큰 건설시장인 일본을 추월하여 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Oxford Economics의 글로벌 랭킹에서 빠르게 위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한다. 2030년까지 우리의 건설 글로벌 성장 스토리에 USD 1조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2020년까지는 중국의 거의 두 배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인도는 카타르와 같이 경제규모에 비례해 주요 인프라 개발을 겪게 될 나라들과 중국을 추월해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건설시장이 될 것이다.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택시장이며, 급격하게 증가할 도시인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15년 동안 170 million의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인도는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낮은 도시 중에 하나이다.
- 인도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중요하게 남아있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여전히 인도에서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도의 인프라는 WEF(World Economic Forum)의 144개국 중에서 90위에 랭크될 정도로 상당히 낮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 인프라는 144개국 중 103위에 랭크되어 있다.
- 최신 World Bank Group 리그표에 따르면 인도에서의 사업 용이성은 130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중국은 84위, 러시아는 51위이다.
- 또한 우리는 자금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PPP 인프라자산과 중지된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인도의 인프라 부문안의 부채의 유의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자신감 있게 다시 시작하는 인도의 인프라 부문의 성장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 인프라 전문지식과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은행 부문 때문에 인도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국은 인도의 인프라 시장 규모 스케일 기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진출했다.

5. UK

: Stand Out Construction Market in Europe and Only G7 Country to Move Up in Global Ranking

“UK stand out Construction Market in Europe and Only G7 Country to Move Up in Global Ranking”

- 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Oxford Economics의 글로벌 성장순위에서 처음으로 영국을 다룬다.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영국은 캐나다와 독일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건설시장이 될 것이고 역시 유럽의 최대 건설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영국은 장기간 인프라 시설과 주택에 대한 투자 부족을 겪어왔다. 이는 대규모 적자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은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해 향후 15년간 330만호의 신규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 영국 정부는 ‘획기적인’ 인프라 메가 프로젝트의 개수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주도해왔다. 제안된 영국의 메가 프로젝트는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규모이며(최근 Cross-rail 프로젝트 제외) 사업 실행 시 영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 주요 사업으로 런던에서 버밍햄, 맨체스터와 리즈와 연결되는 새로운 GBP 500억 파운드 규모의 고속철도 2레일 연결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영국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건설 산업에 USD 6.2 조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30년까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영국의 메가 프로젝트: 영국의 제안되고 계획된 모든 메가 프로젝트의 수행은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영국 국내에서의 구매조달 및 사업 수행에 대한 국내 기술 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제약들은 이를 성장 기회로 이용하기 위한 업체들의 영국 마켓 진입 경쟁이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 영국의 성장 스토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업체의 경쟁은 주로 유럽과 아시아 건설 회사들 간의 경쟁이다. 처음 진출함에 따른 이익은 중요하다. 또한 영국은 현재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부족 위기를 맞고 있다.
- 약 GBP 1,500 파운드의 자본투자가 투입된 메가 프로젝트로는 다음 사업들이 있다.: Heathrow Airport 확장 공사, 영국 전역의 철도/도로 프로그램, 런던을 가로지르는 Crossrail Northern Powerhouse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프로그램 등이 있다.
- BCG의 예상은 영국 정부가 인프라시설에 독자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영국이 경제성장을 상당히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70%의

영국 인프라시설은 민간재정에 의해 개발이 된다. 또한 영국의 재정적자를 메꾸고 균형예산을 2018/19년까지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 지속되는 긴축정책은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나, 민간부분 투자의 성장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국 인프라시설에 대한 대량 투자에 대한 부담과 이러한 인프라시설 지출에 따라 소비자가 더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인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 위기 상황은 바로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완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 영국 인프라 사업에 중국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판도를 뒤바꾸는 사건이다: 한편, 영국의 인프라시설에 중국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일종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Pinsent Masons에서 최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GBP 1,050억 파운드를 영국 인프라시설 및 부동산에 향후 10년 동안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는 프랑스가 주도하여 Somerset Hinkley Pointdp 240억 파운드 핵발전소 사업에 1/3 지분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중국은 몇 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상업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왔다. 이에는 맨체스터 공항 도시 및 ABP의 GBP 17억 파운드 상당의 Royal Albert Docks를 포함한다.

6.Indonesia

: Ranks as Fourth Largest Construction Market in 2030

- 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Oxford Economics의 건설시장 글로벌 랭킹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열한 번째로 큰 시장이나, 2030년까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건설시장으로 인도네시아가 뜰 것으로 전망한다.

7. Japan

: Challenges Ahead for Japan

- 일본은 인구축소로 인한 장기간의 주택 감소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시장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일본의 주택시장은 2025년까지 제로성장에 가까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이후에는 일본의 주택생산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8. Europe

: Won't Find its 'Lost Decade' of Growth

- 유럽에 계속되는 구조적인 경제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은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소비 지출의 단기적인 달콤한 상승기조는 사라질 것이다.
- 이전 보고서에서 강조했듯이 유럽의 건설시장은 2025년까지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했으며 이 상태는 아직도 유효한 사실이다. 서유럽의 주요 건설시장에서 연 평균 1.6%씩 성장하게 될 것이나 2030년까지 연 성장률이 2%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유럽 건설시장이 2025년까지 금융 위기 이전의 소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 주로 인구 통계학적 약점(독일에서 나타난 이주 급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때문에 독일의 경우 전망은 가라앉은 상태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불확실성 역시 이유이기도 하다. 강력한 공공 재정 집행은 독일 인프라 시설 투자에 도움이 된다. 세계 건설 시장의 약 90%를 커버하는 48개국을 분석한 결과 현재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느리게 성장하는 건설시장이다. 즉, “독일은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느리게 성장하는 건설시장이다”
-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건설 활동은 2030년까지 각각 금융 위기 이전 수준 이하인 6%, 11%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모두 독일보다 공공 재정이 부족하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밀어붙이는데 부족하다.
- 스페인 경제는 유로 존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최근 성과가 좋았으며 향후 10 년동안 연평균 2.2% 성장률이 예측된다. 즉, “스페인 건설시장은 2030년까지 유로 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

9. Nigeria

“Nigeria’s Construction Market to Increase 160% by 2030”

- 나이지리아의 건설시장은 2030년까지 매출 US 1,00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약 160% 성장이다. 그리고 정확히 남아프리카 건설 시장 속도의 2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반적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아프리카 상위 도시의 빠른 도시화에 주도되어 2030년까지 1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글로벌 건설 2030 보고서’는 아프리카 상위 20개 도시의 추가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20개 도시들의 각 발전단계와 도시개발의 각 단계의 주요 건설 활동의 종류를 망라한다. 예를 들어 요하네스버그는 GDP로 아프리카 상위 20개 도시의 도시들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시사점

- Global Construction 2030은 글로벌 건설 산업의 성장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시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특히 인프라 시설과 주거 그리고 비주거 부문에서 건설 산업 성장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역과 상품시장에 주목하게 한다.
- 제시된 지역과 상품시장은 중장기적인 건설 산업 성장에서 국가차원의 정책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핵심 변수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또한 민간자본조달 역량이 글로벌 건설 시장의 성장에서 관건이고 선진국에서도 메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 확보가 고민이라는 것이 한국건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건설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요 충족 혹은 개선 및 복원을 위한 지역을 선별하고, 향후 시장의 성장성 탐색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상품시장에서의 소화역량을 진단하고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플랜이 가동되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16CTAP-B080352-03) 지원을 받아 수행함.